

# 대면수업 재개에 고개드는 학폭... 피해자 구제는 '제자리'

코로나19로 줄었던 학교 폭력이 대면 수업 확대와 함께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1832건이었던 학교 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55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682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범죄유형별 검거 인원 통계를 2017년과 비교하면 폭행·상해(-47.3%p), 금품갈취(-11.6%p) 등 물리적인 폭력은 줄어든 대신, 모욕·명예훼손(72.3%p), 성폭력(28.5%p) 등 정서적 폭력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교내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많았는데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폭력이 빈번해졌다. 통계적으로도 범죄 가운데 19.8%는 온라인 등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학교폭력 5건 중 1건은 사이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자는 초등학교생이 56%로 압도적으로

코로나 사태 직후 학폭 신고 감소 물리적 행위 줄고 정서적 가해 증가 실제 폭력 근절에는 큰 변화 없어

일각선 피해자 회복정책 실효성 의문 "해결방안, 가해자 위주 처벌·대처"

많았고 중학생 24.3%, 고등학생 15.3% 순이다.

학교 폭력의 실체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한 고교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동급생 11명은 숨진 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성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며 소위 '기절놀이'라고 말하는 폭력을 가하는 동영상도 남아있었다.

지난해 4월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

에서는 지속적인 기절놀이 폭력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의 기절 모습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중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기절놀이를 당해 쓰러진 사건이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 기절놀이란 숨이 막힐 때까지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행위로 많은 학교 폭력을 양산했던 위험한 행위 중 하나다.

언뜻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처럼 보

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치상 변화일 뿐, 학교 폭력 근절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폭력 수치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사이버 폭력이 심화되면서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는 정신적 괴로움이 가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열린교육연구의 2022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논문에는 따르면 현재의 제도적 환경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이 양적으로 다수인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대처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학생들이 일상생활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교 폭력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

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Wee)센터'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피해 학생도 가해자와 또래이기 때문에 통합형 시설이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WEE센터의 경우 통합적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조정실 회장은 "전국의 약 1만1700개 학교 중 피해 학생 없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피해 학생 전담의 학교 폭력 대안 교육 시설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 회장은 "피해 학생에게는 독립된 전담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또래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통합된 시설에서는 오히려 다시 상처받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 학생만을 위한 전담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중앙대, AI 기반 항암 전자약 개발 나서

왓슨앤컴퍼니와 개발사업 맞손 "치료 어려운 암환자에 대한 제시"

중앙대학교와 왓슨앤컴퍼니가 '인공지능(AI) 적용 항암 전자약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AI를 적용해 항암 전자약을 개발하는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양 기관은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 사업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앙대 전기에너지응용연구실과 왓슨앤컴퍼니는 '전기장 및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 치료기 및 최적 설계 기법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능을 높인 항암 전자약을 개발해 병원과 가정의 연계치료를 돕기 위해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암 치료 솔루션



(왼쪽부터) 정용안 인천성모병원 교수, 노종석 중앙대 교수, 김민규 왓슨앤컴퍼니 대표, 김순중 맘모트 대표가 'AI 적용 항암 전자약 개발 사업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

선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용안 인천성모병원 핵의학과 교수가 임상 자문위원, 유방암 관련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가로 현재 대한암협회 집행이사를 맡고 있는 김순중 맘모트 한국지사 대표가 개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을 돕는다.

고중혁 중앙대 산학협력단장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전기장 중앙치료 기술을 적용한 항암 전자약은 미국·일

본·싱가포르 등 70여 개 국가에서 1만 7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항암 전자약 치료기기가 없어 의사와 환자들의 선택지가 좁은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될 항암 전자약은 폐암, 뇌종양, 췌장암 등 치료가 어려운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 세종대, 'THE' 대학평가 상승... 41위

국내 논문 피인용도 1위 차지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THE'가 발표한 '2022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1위에 올라 2년 연속 아시아 5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시아 46위에 올라 처음으로 아시아 50위권에 진입한 후 올해는 5계단 상승한 아시아 41위에 올랐다. 국내 순위도 지난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세종대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국내 논문 피인용도 1위를 차지했다. 세종대는 올해 논문 피인용도에서 90.2점을 받아 85.4점을 받은 UNIST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논문 피인용도에서 90점대를 받은 것이다.

세종대는 이미 여러 차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순위를 선정하는 '2021 라이덴 랭킹'에서 4년 연속 국내 일반대 1위를 차지했다.

THE 대학평가는 QS 세계대학 평가, ARWU 세계대학 학술순위와 더불어 세계 3대 대학 평가로 손꼽힌다. 이번 평가는 아시아 31개국 6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부생이 없거나 최근 5년간(2016~2020년) 논문수가 1000개 미만(1년간 15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 서강대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참가자 모집

오는 17일까지 선착순 접수

서강대학교가 '2022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은 서강대 창업지원단에서 올해로 7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투자유치(자금조달)를 위한 IR 피칭테크 구성 방법을 교육하는 실전창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강대 및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청이 주최하고 서강대 창업지원단(서강비즈니스센터)이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9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며 전반기 4주간 '비즈니스 클리닉', 이후 4주간은 '피칭 클리닉'을 진행한다.

출석률이 70% 이상인 팀은 마지막 9주차에 진행되는 IR피칭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IR피칭대회에서 우수한 성



과를 보인 상위 3개 팀에는 총 상금 300만원,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1~8주차에 진행되는 강의 및 멘토링은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IR피칭대회는 실제 투자환경과의 유사성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선착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강대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 부경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엑시톤 제어기술 확립 계획

국립부경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연구거점 구축사업인 '202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부경대는 이번 사업에 에너지 수송 융복합체 연구소가 최종 선정돼 이달부

터 2031년까지 80억 원을 지원받아 국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센터 구축에 나선다.

연구소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차세대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엑시톤(exciton-준입자)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고, 이를 이용한 미래소재 및 소자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엑시톤은 절연체나 반도체 소재 안에서 만들어지는 준입자다. 이 입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전자 대신 활용해 빠르고 발열이 없는 차세대 반도체나 광통신 소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입자가 쉽게 소실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경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인력양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재정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연구소의 지역 거점 확보를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도식 기자 metrobusan@